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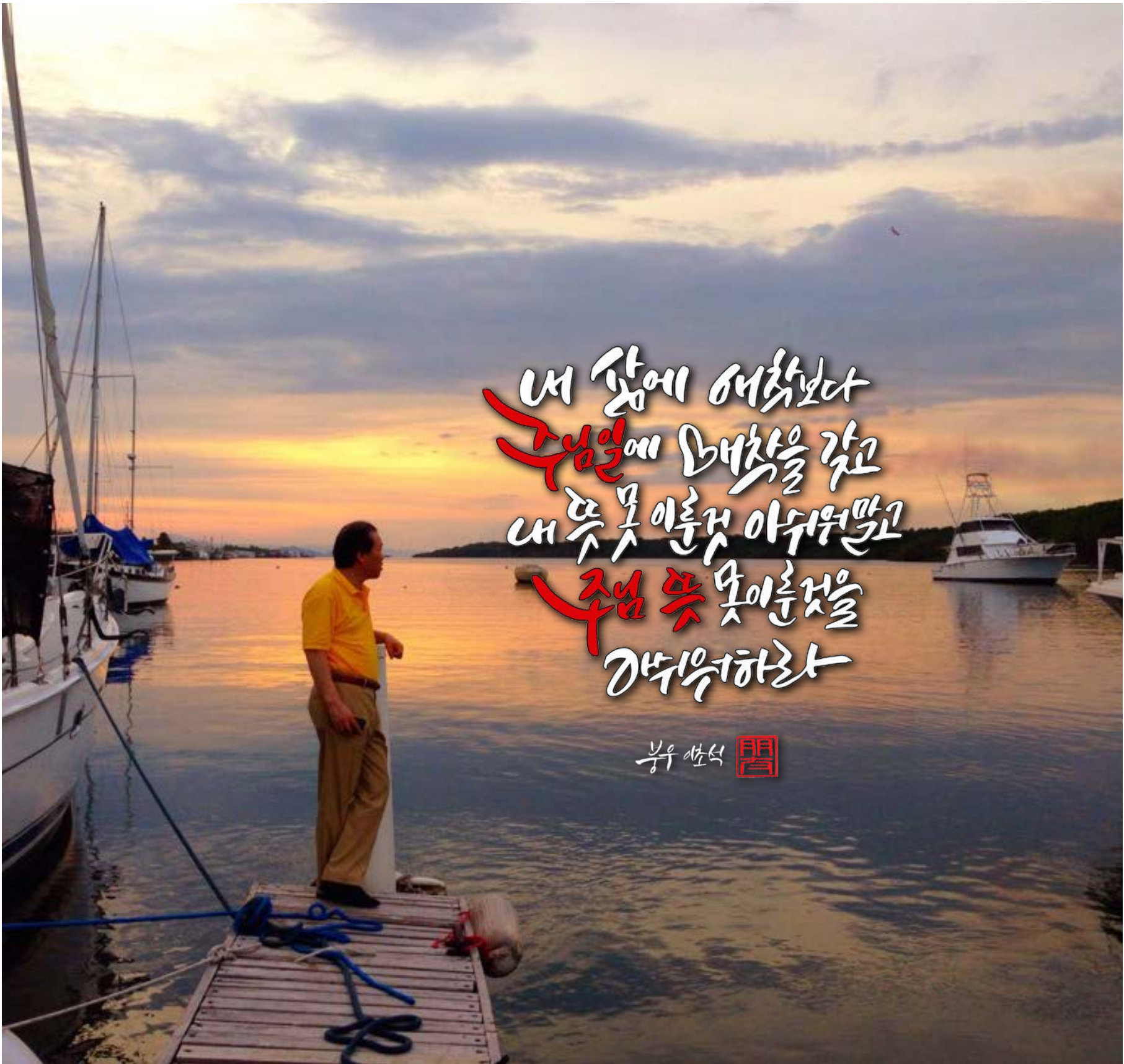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5월 28일 (제90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지령 900호에 부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펜을 쥐는 일이다. 글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글이란 그 시대, 그 나라의 힘이요, 시간표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오늘의 만나를 문자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 신앙의 지침서가

된 것처럼 얼마든지 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육을 가진 사람 인지라 언젠가는 외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터, 펜의 힘을 빌려 선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말과 글의 힘을 나는 안다. 말이 펜의 힘을 빌리면 글이 된다. 고로 말과 글은 하나다. 그러나 이 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사할 수 있지만 절망을 주사할 수도 있다. 또 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아줄이 될 수도 있지만, 썩은 동아줄을 되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때로는 글이 독약이 될 수 있지만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자물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총으로 죽인 자보다 펜으로 죽인 자가 많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글 쓰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 신문이 어느덧 900호를 발행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주보형식의 신문이었으나 2000년부터 'Jesus Centered News'로 개명하여 어언 18년 가까이 왔다. 자부할 것이 있

다면 우리 신문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글이 아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글을 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좌절한 자를 일으키며, 상심한 자를 치료하는 글이었기에 우리 신문이 내심 자랑스롭다. 바랄 것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사람들의 영·혼·육을 살피우는 명품신문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신문이 가보(家寶)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벨라루스 집회

6월 5(월) ~ 15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2:21~26)

믿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2:2~4).

이 말씀처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확실히 보입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서 안해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잠이 없어서요? 시간이 남아돌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를 10년 이상씩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봉사하는 것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날에 받을 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고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저는 예배 후에 꼭 안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러 오지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아휴, 목사님 힘드신데 왜 저렇게들 안수를 받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안수하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일랑 말고,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으세요. 엄마가 젓유종 난다고 애들에게 젓 안 물리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매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행함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롬3:20). 그러나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동을 보고나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시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창22:16~18)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축복하셨다고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8), 즉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2: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2:24).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는 온 세상 사람들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사랑도 동사(動詞)라는 것을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빛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5~16). 배고픈 자에게는 위로보다 라면 한 그릇이 낫습니다. 험빛은 자에게는 설교보다 웃 한 발이 낫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

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25:42~43)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나무라시며 그들을 영멸에 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니라”(수2:11)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안전하게 피신시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준행하였음입니다(약2:25). 그런 행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여러 고를 점령했을 때 그녀와 가족들이 죽임을 면한 것입니다(히11:31). 어디 그 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올랐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행함=기적과 축복’이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약2:22).

현금 드리는 거요? 십일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을 때는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 못 드립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느 자매가 첫 열매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 자매는 “네 재

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9~10)는 말씀을 믿은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뤄질 것입니다.

위인은 결단하고 행동하나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에 관한 축복,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는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못 옮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드리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못 드립니다. 이것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를 드리고 바로 열매가 안 맺힌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부터 나지 열매부터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듯 인내하고 기다리면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은 대로, 말라기서 3장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는 말씀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실 겁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믿으니까 남편이 월급봉투를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나 요셉은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멀리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그럼요, 순종도 믿음의 외적 표현이지요.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모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봅시다. 실천하는 신앙인지, 말만 하는 신앙인지 따져봅시다. 부디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교회신문 900호, 하나님께 영광!

2017년 5월 28일, 교회신문이 어언 지령 9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7년 3개월여 동안 소중한 한 글자, 한 문장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 부어 오늘의 신문이 있도록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900호 교회신문이 나오기까지 일등공신은 여전히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주일설교말씀을 비롯하여 골수를 파고드는 보석 같은 봉우칼럼과 성경에세이 등 신문의 가장 중추적인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시대 목사님, 신기류 목사님, 신현명 목사님은 목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명품 ‘객원칼럼’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 깨워주고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님은 객원칼럼과 더불어 군뉴스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목사님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임택할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은택 전도사님은 커버스토리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국내외 전도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 상황보다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 객원칼럼으로 우리에게 감동의 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옥 전도사님은 ‘참된 깨달음’으로, 이정금 전도사님은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님은 ‘신앙논객’을 통해 예리하고 정금 같은 필체로 신앙의 정수를 알려주고 있고, 이광주 전도사님

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신선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춘철살인의 좋은 글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생생한 간증으로 교회신문을 장식해주신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을 굳센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생활 속의 집안’을 통해 우리 삶의 좌표를 제시하는 오자유 집사님, ‘To be succeeded’를 통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국진 자매님, 의학박사로서 우리 교단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코너를 맡고 있는 의사 조희경 집사님과 한의사이신 설재현 집사님, 청년부의 리더로서 매주 ‘귀를 기울이세요’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믿음의 글로 잘 승화시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송현혜 자매님, 세종시로 이사 갔어도 여전히 ‘성경에서 배운다’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하인명 자매님, 차세대 국문학 박사로서 문서선교부의 총무 역할까지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기쁜 마음을 선사하는 전훈지 자매님, 유망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다가 최근 새로운 배움의 길을 찾아 하와이 주립대로 유학을 떠남으로써 역동적 젊은이의 실천적 삶의 메시지를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 전달하는 신은혜 자매님, 주식투자의 전문가로서 ‘객원칼럼’을 통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산증식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미경 집사

님, 사업관계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도 객원컬럼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알려주시는 임운석 집사님, 차세대 컴퓨터공학 박사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아름다운 글로 보여주는 김성일 형제님, ‘사랑&행복’을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랑과 행복을 곱게 전달하는 김고은 자매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영상 사업가로서의 영역을 굳건히 다지고 있는 이은성 형제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향을 ‘하나님 편에서 살’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김경현 자매님, 신문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신은유 자매님과 박소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신문에 만화 삽화를 제공하는 김문식 형제님, 그리고 거침없는 동양화를 선사하는 최문선 자매님과 캘리그래피로 말씀을 전하는 강혜진 자매님, 아름다운 사진으로 지혜의 말씀을 장식해주는 고광

위 형제님, 그리고 디자인을 총괄하는 임지혜 자매님, 이외에 신앙 간증과 교회신문을 위해 기고한 많은 분들이 모두 우리 신문의 오늘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특히, 신문 편집국장 신영심 집사님은 주일설교 말씀 요약, 교단소식, 인터뷰 기사, 특별 기획기사 등을 주관집필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집필 섭외를 하는 등 신문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실무 봉사자입니다.

우리 교회신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단 및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과 민족, 세계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중심교회의 선교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900호를 넘어 이제 1000호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귀를 기울이세요 ::

팀워크 리더십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지도자는 동기부여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비전 전달력, 자원의 효과적 배치 능력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도 이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팀워크(team-work)의 진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기러기 떼는 이동할 때 V자 형으로 난다. 날다가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대열 속으로 들어와 쉬고 다른 새가 선두 자리를 맡는다. 한 마리가 병들거나 다쳐서 대열에서 뒤처지면 다른 두 마리가 함께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 아픈 기러기가 회복되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어준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뿐 아니라 지도자 곁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특별히 세컨드 리더십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컨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다. 갈렙은 40년 이상 무대 뒤에 감춰진 인생으로 살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갈렙은 85세가 돼서 가

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어려운 땅인 헤브론 산지를 맡아 정복하겠다고 자청했다. 갈렙은 가장 좋고 넓은 땅을 요구해도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2인자였다. 그러나 그는 인생 후반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여호수아를 도왔다.

팀워크는 지도자 곁에 위대한 협력자가 있을 때 이뤄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4:9). 팀워크의 시작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0kg을 견딜 수 있는 밧줄 세 개를 묶었을 때 산술적으로는 60kg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kg 이상을 견딜 수 있다. 이유는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물질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협력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는가.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 사업체에, 교회에, 그리고 단체와 가정에 팀워크 리더십을 기대한다. ‘내가 해냈다’고 외치는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냈다’고 외치는 지도자를...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세상을 보는 창 ::

리모델링을 넘어 변화

작년 겨울,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유명한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연예인 인터뷰 촬영이 있었다. 그런데 촬영지인 이 카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유인즉슨 이곳은 겉모습으로는 다 쓰러져가는 폐공장이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공장 본연의 모습은 유지한 채 속만 세련되게 리모델링하여 빵집과 함께 카페로 이용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럴까. 폐공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가로수길’의 카페처럼 좋아보였다. 그리고 이 일대의 카페나 레스토랑이 모두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이곳을 ‘강북의 가로수길’, ‘제2의 경리단길’이라고 한단다.

공장지대에서 신흥 부촌으로 싹 바뀐 성수동 일대는 과거 1960년대 공업단지로 조성돼 공장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70년대에는 수제화 관련 제조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국내 최대 수제화 산업지역으로 꼽혔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금강제화, 엘칸토, 에스콰이어 등의 국내 구두 브랜드 생산 공장이 위치했었다. 그런데 공장과 창고

가 즐비하여 일반인들이 다니기 꺼리던 지역이 어떻게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으며 과거보다 월세가 2~3배가 오르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되었을까? 그것은 30년 이상 된 건물들의 낡음을 멋으로 바꾼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미소, 인쇄소, 폐공장이었던 공간이 아주 멋스러운 갤러리, 패션쇼 행사장, 커피전문점으로 변화된 것처럼, 사람도, 부지도, 물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돈을 좇던 세리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에서 세계 20,000km를 걸으며 예수님을 전도하게 된 사도 바울,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길을 가며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총회장 목사님.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환된 이들이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믿음의 선전들과 성수동의 변화를 보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인임을 기억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칠전팔기(七顛八起)

지난해, A학회에 논문을 투고했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가 나와서 논문을 실지 못했다. 그 논문을 수정해서 올해 초 B학술지에 다시 투고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또 ‘게재 불가’로 떨어졌다.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동기들 중에서 비교적 논문을 많이 낸 편이고, 낼 때마다 결과가 좋았었다. 그런데 연달아 결과가 좋지 않으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솔직히 좀 위축되기도 했었고, 이제 곧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공부가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도 일었다.

때마침 학위논문 심사기간이었다. 같은 지도 모임에서 세 학생이 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친구도 떨어지고, 떨어질 줄 알았던 친구도 떨어졌다. 그간 소리 없이 열람실 구석에서 공부하던 친구만이 합격했다. 그들의 합격 여부를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친구의 불합격 소식과 요란한 빈 수레 같은 선배의 불합격 소식이 최근 투고한 논문이 떨어진 내 모습과 겹치면서 나는 그만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 시간 내 행동과 생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 보았다.

내가 받은 결과에 속도 상하고, 남이 받은 결과를 보니 더 막막하고 자신감은 깊이를 모르는 바다까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참을 헤매다 문득 나의 인생 모델들을 떠올려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내 인생의 모델은 세상 어딘가가 아닌 성경 속에 있다.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 쫓겨난 야곱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를 몰랐던 야곱의 생애 그 자체가 내 삶의 본보기이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그 이후로 13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시험에 빠

진 욕도 지독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족복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두려움에 떨며 동굴로 숨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도 결국에는 주님에게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냥 성경 속 인물 하나하나를 떠올려보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인생임을 말하고 있었다. 가슴 속에 쌓였던 답답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 멍멍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 다시 결심하였다. 다시 할 것! 뭘 때까지 다시 할 것!! 절대로 자만하지 말 것!!!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결과에 좌절하기보다 다시 뿔 마음에 신발 끈을 조이는 것처럼 심장이 쏙쏙해졌다. 나는 다시 뿔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무리 박학다식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한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상화평 목사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조선조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선비가 뱃사공에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공자와 맹자를 아는가?” 모른다고 하자 “자네는 인생의 사분의 일을 헛살았네.” 라고 하며 다시 “사서삼경은 아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것 역시 모른다고 하자 혀를 끌끌 차면서 “자네는 인생의 절반을

헛살았구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에 풍랑이 일자 배가 뒤집히며 거드름을 피우던 선비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선비는 헤엄칠 줄 모른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선비님은 인생을 헛사셨군요. 이제 죽어야 하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

♣ 유테인들은 말한다.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꿈을 심어주라.”

There's a Jewish saying,

"Give your child a dream, instead of money."

犹太人的俗话中有,不要给子女金钱,要让他们拥有梦想

∴ Global Study ∴

♣ 꿈은 자석이 쇠를 모으듯 지혜를 모은다

A dream draws wisdom like a magnet draws iron.

梦想就如磁铁吸铁,聚集智慧。

걷기운동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걷는다는 것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같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 속에는 200여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 3km 내외를 걷는다. 대략 6,000보를 걷는 셈이다. 그러나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만 일을 하면 이 걸음 수는 현저히 떨어진다. 예컨대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와 주차된 차를 타고 직장으로 향한다. 주차장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는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의자에 앉아 일을 한다. 이런 경우 하루에 걷는 걸음 수는 500보가 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리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걷는 환

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루에 최소 2,000보 정도, 또는 30분 정도는 의식적으로 걸어야 한다. 물론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가장 좋다. 또한 바른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걸음걸이가 잘못되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병을 부른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허리를 쭉 편 채 똑바로 걷도록 하고 팔자걸음, 안짱다리 걸음, 구부정한 걸음, 비틀 걸음 등의 나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걷기운동은 많은 장점이 있다.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임산부, 노약자, 비만자, 당뇨병 환자, 골다공증 환자 등도 적당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걷기 운동은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스트레스를 없애고 우울증을 치료한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이처럼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보통 앞으로 걷는다. 그러나 운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걷기 방법이 있다. 뒤로 걷기는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고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빠른 걸음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리를 강건하게 한다. 이른 아침 걷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계단 오르기는 근력강화와 호흡기 및 순환기 계통을 단련시켜 지구력이 증진된다. 잠자기 전 걷기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거실을 1,000보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 취침하면 되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16:26).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아니마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나는 믿는다’는 뜻을 가진 ‘아니마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였는데, 가사에 믿음을 실어서 합창했던 곡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야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절을 이렇게 슬프게 부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야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활짝 열린 수용소의 문을 빠져 나오면서
 아니마뎀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고쳐 불
 렸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
 야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
 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
 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체될 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과
 연 내가 하는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나?
 정말 듣고 보고 계시는가?’, ‘진실로 의
 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가?’(약
 5:15~16)라는 질문과 함께 연약한 인간
 인지라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
 이 어렵고 힘든데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해도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때가 무르익었을 때 과일을 수확해야 그 과일이 최고의 맛을 내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침묵의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침묵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서 죽나보다’ 싶은 순간을 넘어서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기적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아니마뎀’,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 다음에
심판대를 두려워하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